

# 『黃帝內經』의 體質論

최 승 훈\*

## The Constitutional Ideas in the 『Huangdi Neijing』

*Choi Seung-ho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ne's constitution is formed congenitally and is also acquired, and is relatively stable in its individually manifested function, structure and temperament. It has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complexity, generality and continuity. It is also manifested in physiological responses and expresses pathologic tendencies including susceptibility.

Attempts at understanding constitution has had a long history throughout the world.

In Oriental Medicine, the constitution had been acknowledged from the 『Huangdi Neijing』, which has been a bible in Oriental Medicine for about two thousand years. In many aspects, the 『Huangdi Neijing』 provides the basis for both basic and practical fields.

In order to derive the ideal structure from the 『Huangdi Neijing』 to Lee Je-ma's(Lee Jayma's) Sasang Constitutional ideas, which can strengthen the understanding of ideal core of Oriental Medicine's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author launched his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s in the 『Huangdi Neijing』 as a first step and came to the following:

1.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in the 『Huangdi Neijing』 was done both via the physiological responses to heat, pain and acupuncture treatment and the pathologic tendencies via body structure, strength, body heat, courage and obesity.
2. It was recognized that the constitution was formed congenitally and also acquired factors like

---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living conditions including food customs, residents and geographical conditions were explained in detailed.

3. The constitutional typology was suggested both by the general and systematic criterion according to the Yin-yang and the Five phase theories and by single criterion such as obesity, courage and the response to acupuncture treatment.
4. As diagnosis i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courage was adopted for the disease caused by emotions, obesity was for its manifestations of qi and blood, the quantities of qi-blood and Yin-yang in the typology by the Yin-yang and Five phase theories were suggested.
5. In the case of obesity, Yin-yang and Five phase theory, treatmen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ideas was mentioned, and their goals were concluded as "being the balancing between Yin and Yang" which means the Yin-yang theory is more practical than the Five phase theory in Oriental Constitutional Medical field.

According to the above understandings, the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constitutional ideas in the 『Huangdi Neijing』 based on the Yin-yang theory blossomed via the practical spirit of Zhang Zhong-jing's 『Shanghanlun』 and at last from Lee Je-ma's(Lee Jayma'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hich realized "the balancing between Yin and yang" through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herbal treatments.

## I. 序 論

體質은 先天·後天的으로 형성되며, 功能 形態 및 心理的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안정된 個體의 特性<sup>1)</sup>이다. 體質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존재하게 되며(普遍性), 얼굴생김 만큼이나 천태만상으로 복잡다양하고(複雜性), 정신과 육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며(全面性),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드러나는(連續性) 등의 기본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體質이 생리적으로는 개체의 生理反應性으로,

병리적으로는 發病傾向性으로 나타나는데, 生理反應性은 內外의 환경인자에 대한 인체의 끊임없는 반응을 말하며, 病理傾向性은 특정한 발병인자에 대한 易感受性, 어떠한 질병이나 病證에 대한 易發生性和 易轉化性으로 표현된다<sup>2)</sup>.

역사적으로 體質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에 걸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에, Empedocles의 4元素說의 영향을 받은 Hippocrates가 인간의 體質을 多血, 粘液, 膽汁, 黑膽汁質의 4종 유형으로 나눈 것이 그 효시로 인정

1) 上海辭書出版社가 1979년에 출판한 『辭海』의 의미규정을 위주로 하였지만, 필자의 견해에 따라 심리적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2) 錢承輝 王慶其 主編: 『中醫臟象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되어지며, 중국에서는 시대적으로 그에 앞서는 『周禮·地官·司徒』에서 “삼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털이 많으며,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검고 윤택이 나며, 구릉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통통하고 키가 크며, 무덤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고 말랐으며,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살이 많고 작다”<sup>3)</sup>라고 한 것과 『管子·水地篇<sup>4)</sup>』이나 『呂氏春秋·盡數<sup>5)</sup>』에서의 내용은 모두 지리적인 환경에 따른 體質의 형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原始韓醫學에서 “體質”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黃帝內經』을 비롯한 여러 서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素問·逆調論』의 “是人者 素腎氣勝”, 『素問·厥論』의 “是人者質壯, 秋冬奪于所用”과 『靈樞·逆順肥瘦』의 “年質壯大, 氣血充盈 …”이라고 한 “素”와 “質”은 바로 體質이라는 의미와 일치한다. 그 후로 唐의 『千金要方』에서는 “稟質”, 宋의 『婦人大全良方』에서는 “氣質”,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賦稟”, 明의 張介賓은 “稟賦”, 趙養葵는 “氣稟”, 淸의 徐靈胎와 尤在涇은 “氣體”라고 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으며, 淸初의 葉天士가 『臨證指南醫案』에서 “치료의 원칙으로 모두 그 체질의 음양을 잘 구별하여야 한다<sup>6)</sup>”고 하여 體質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로 陳復正의 『幼幼集

成』에서 “奈今之小兒, 體質元氣更不及前”, 俞根初의 『通俗傷寒論』에서 “무릇 太陽傷寒에 그 邪氣가 오직 少陽과 陽明으로만 전변되거나, 少陽과 陽明으로 전변되지 않거나, 또는 三陰으로 건너뛰어 전변되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각각 그 사람의 體質의 陰陽과 臟腑의 寒熱에 따라 …”라고 하였으며, 章虛谷의 『醫門棒喝』에서는 “稟質”과 “體質”을 함께 사용하였다<sup>7)</sup>.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건강과 발병상태를 正氣와 邪氣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健康한 狀態를 “正氣가 체내에 잘 보존되어 있으면 邪氣가 침입하지 못한다” (『素問·刺法論<sup>8)</sup>』)라고 하고, 發病의 狀況을 “邪氣가 인체를 침범하였다면 그 사람의 正氣는 반드시 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素問·評熱病論<sup>9)</sup>』)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서양의 학에 비해 한의학이 발병인자를 대표하는 邪氣보다 인체의 생활능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正氣를 중시하는 발병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正氣의 양호여부가 질병의 발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며, 이는 다시 한의학의 치료방법이 대부분 正氣의 배양과 보존을 목표로 하는 점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물론 『素問·刺法論<sup>10)</sup>』에서 “다섯 가지의 전염병이 돌게 되면 모두 서로 쉽게 전염되어 老少를 불문하고 그 증상이 서로 비슷하다”고 한 것처럼 발병 양상에 대한 邪氣의

- 3) “一曰山林, 其民毛而方. 二曰川澤, 其民黑而津. 三曰丘陵, 其民專而長. 四曰墳衍, 其民皙而瘠. 五曰原濕, 其民肉豐而痺.”
- 4) “越之水濁重而儲, 故其民愚疾而垢”
- 5) 다섯 가지의 水土(지역)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질병에 관한 내용으로 “輕水所多禿與獨人”, “重水所多緇與瘠人”, “甘水所多好與美人” 등이다.
- 6) “治法總宜辨其陰陽.”
- 7)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96, p.245
- 8) “正氣存內, 邪不可干”
- 9) “邪之所湊, 其氣必虛”
- 10) “五疫之至, 皆相染易, 無問大小, 病狀相似”

결정적 역할을 인식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은 正氣爲主의 發病論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正氣爲主의 發病論은 正氣와 邪氣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라는 量的인 비교로부터 더 나아가 그러한 正氣가 質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體質의 인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靈樞』에서 제시된 正氣의 構成樣態가 바로 『通天篇』과 『陰陽二十五人』 등에서의 陰陽論的, 五行論的 體質類型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體質論은 李濟馬가 “『靈樞』의 내용 가운데 太少陰陽人과 五行人에 관한 理論이 있지만, 이는 대략적으로 外形만을 말하였을 뿐이고 臟腑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였다. 대개 옛날 사람들이 太少陰陽人에 대하여 일찌기 認識하였으나 정밀하게 연구하지는 못하였다”고 한 것처럼 실천적인 임상의학에까지 확충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黃帝內經』의 전통을 잇고 있는 후세의 醫家들이 『黃帝內經』의 내용가운데 유독 體質醫學的 認識의 수준을 전혀 제고시키지 못한 점<sup>11)</sup>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이론 전반에 걸쳐 그 연원과 기초가 되고 있는 『黃帝內經<sup>12)</sup>』에서의 體質

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므로써 한의학에서의 體質에 대한 인식의 출발과 전개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를 揭示해내고, 한의학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體質醫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이론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주로 葉天士, 徐靈胎, 尤在涇, 俞根初 등 清代의 탁월한 『傷寒論』 연구가들에 의해 體質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진 것과 朝鮮末의 李濟馬 역시 張仲景의 『傷寒論』에 그 임상적 기초를 두고 그의 體質醫學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동시에 한의학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體質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의학적 고찰에 입각하여 『黃帝內經』과 『傷寒論』을 연원으로 하여 성립된 李濟馬의 실천적 體質醫學의 발명이, 한의학의 중심에서 벗어난 少數民族醫學의 한 형태가 아니라, 正氣爲主의 발병론을 가지는 한의학의 體質醫學的 本質을 더욱 발양하므로써 한의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힌 위대한 업적을 입증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이 글을 쓴다.

11)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96, p.246

12) 『黃帝內經』이라는 文獻에 관하여 잠시 살펴 보면, 唐의 王冰이 註를 달아 編纂하고 난 다음, 北宋의 新校正사업에 의해 완성된 『素問』과 宋의 史崧이 24권으로 改編한 『靈樞』가 바로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黃帝內經』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이렇게 『素問』과 『靈樞』를 합하여 『黃帝內經』으로 간주하는 것은 晉의 皇甫謐이 『素問』과 『鍼經』을 합한 卷數가 『漢書·藝文志』에 기록된 『黃帝內經』 十八卷의 數와 일치함을 근거로 『素問』과 『鍼經』이라는 두 文獻을 합하여 『漢書·藝文志』의 『內經』과 동일시하는 전통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물론 『鍼經』과 『靈樞』가 동일 문헌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鍼灸라는 한 분야에 당시로서는 방대한 전문서적이 따로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한 별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문헌이 현존하지 않는 실정이고, 『甲乙經』을 비롯하여 그에 가까운 후대의 鍼灸學 관련서적의 내용을 통하여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므로 『鍼經』과 『靈樞』는 같은 문헌에 대한 두 명칭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재 中國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계의 定說이다. 文獻의 著作時期나 版本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內經』 이후의 著作을 통해서 『素問』과 『靈樞』로 이루어진 『黃帝內經』이 한의학의 이론이 성립되던 시기의 의학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版本상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의 體質에 관한 인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 II. 體質의 認識

『黃帝內經』이 성립되던 시기에 이미 엄청난 양의 의학적 경험이 축적되고 동시에 질적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건강과 발병의 과정에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한의학 이론의 형성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으로 삼입되었으며, 『內經』이라는 문헌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體質論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體質은 개체의 生理反應性과 病理傾向性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서론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內經』에서의 體質에 대한 인식을 生理反應性과 病理傾向性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앞으로 다룰 體質의 形成, 分型과 辨證論治의 내용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體質論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개체의 특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주요대상으로 삼았다.

### 1. 生理反應性

生理反應性이란 인체가 다양한 환경인자에 대하여 반응하는 個體特異性을 의미한다.

“帝曰：人身有寒，湯火不能熱，厚衣不能溫，然不凍慄，是爲何病？”

岐伯曰：是人者，素腎氣勝，以水爲事 …”

「素問·逆調論」

인체에 대하여 濇熱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湯火나 厚衣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개체의 특이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少俞曰：夫忍痛與不忍痛者，皮膚之厚薄，肌肉之堅脆，緩急之分也，非勇怯之謂也。” 「靈樞·論勇」

“少俞曰：人之骨強，筋弱，肉緩，皮膚厚者，耐痛。”  
「靈樞·論痛」

뼈의 強弱, 皮膚의 厚薄, 肌肉의 堅脆緩急에 따른 痛症反應의 차이를 언급 하였다.

“黃帝問于岐伯曰：余聞九鍼于夫子而行于百姓，百姓之血氣各不同形，或神動而氣先鍼行，或氣與鍼相逢，或鍼已出氣獨行，或數刺乃知，或發鍼而氣逆，或數刺病益劇，凡此六者，各不同形，願聞其方。

岐伯曰：重陽之人，其神易動，其氣易往也，… 其氣逆與其數刺病益甚者，非陰陽之氣，浮沈之勢也。此皆粗之所敗，工之所失，其形氣無過焉。” 「靈樞·行鍼」

특히 『靈樞·行鍼』에서는 刺鍼에 대한 환자들의 각기 다른 반응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陰陽의 體質分型이 설명되고 있다. 刺鍼에 대하여 여섯 가지의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그 중 네 경우는 陰陽의 인 體質 偏差에 따른 生理反應性이며, 나머지 두 경우는 의사의 誤治에 따른 결과임을 지적하는 黃帝와 岐伯사이의 의도적인 대화의 전개를 통하여 당시 의학계의 體質에 대한 수준높은 인식과, 아울러 誤治의 결과를 體質 차이에 따라 생기는 반응으로 왜곡하고 있는 당시의 저질 의료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시의 의학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內經』에서는 生理反應性을 濇熱, 痛症 및 鍼治療에 대한 개체의 서로 다른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病理傾向性

病理傾向性은 개체에 따른 어떤 특정한 발병인자를 쉽게 받아 들이는 易感受性과, 어떠한 질병이나 병증들이 쉽게 발생하고 또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진행되는 易發生性과 易轉化性을 포함한다.

“黃帝問于少俞曰：有人于此，并行并立，其年之長少等也，衣之厚薄均也，卒然烈風暴雨，或病，或不病，或皆病，或皆不病，其故何也？”  
『靈樞·論勇』

“黃帝問于少俞曰：… 夫同時得病，或病此，或病彼，意者天之爲人生風乎，何其異也。

少俞曰：夫天之風者，非以私百姓也，其行公平正直，犯者得之，避者得無殆，非求人而人自犯之。”

“黃帝曰：一時遇風，同時得病，其病各異，願聞其故。

少俞答曰：木之所傷也，皆傷其枝，枝之剛脆而堅，未成傷也，人之有傷病也，亦人其骨節皮膚腠理之不堅固者，邪之所舍也，故常爲病也。

黃帝曰：人之善病風厥澹汗者，何以候之，… 人之善病消蠱者，… 人之善病寒熱者，… 何以候人之善病痺者，… 人之善病腸中積聚者，何以候之。

少俞答曰：是謂因形而生病，五變之紀也。”

『靈樞·五變』

“人之病，或同時而傷，或易已，或難已，其故何如？”

少俞曰：同時而傷，其身多熱者易已，多寒者難已。”

『靈樞·論痛』

“岐伯對曰：凡人之驚恐志怒動靜，皆爲變也，… 當是之時，勇者氣行則已，怯者則著而爲病也。”

『素問·經脈別論』

“黃帝問曰：風之傷人也，或爲寒熱 …

岐伯對曰：…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眥，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人瘦則外泄而寒則爲寒中而泣出。”  
『素問·風論』

『靈樞·論勇』 과 『靈樞·五變』 에서는 易感受性を 중심으로 體質을 인식하였으며, 『靈樞·五變』 인용문 후반부와 『靈樞·論痛』, 『素問·經脈別論』, 『素問·風論』 에서는 易發生性和 易轉化性的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靈樞·五變』 에 “少俞가 말하기를 무릇 자연계의 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사사로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잘 알아서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風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고, 그 법칙을 잘 알아서 미리 예방에 힘쓰면 風邪를 막아 발병치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風邪

가 어떤 특정인을 골라서 발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자연의 법칙에 벗어난 有爲의인 생활을 하므로써 風邪를 얻어 발병케 된다”고 한 내용은 바로 『老子·第五章』 에서 “天地不仁”이라 하여 자연계의 운행이 사사로운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 갈바를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그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순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道家的인 醫學 思想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素問』 과 『靈樞』 의 내용 전개가 대부분 黃帝와 岐伯이라고 하는 가상인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靈樞』 세 편에서의 신하는 우연하게도 모두 少俞라는 가상인물에 일치하고 있다. 또한 少俞는 『靈樞』 에 네 번 등장하는데 그 중 세 편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體質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靈樞』 의 기술당시 體質에 관한 인식을 病理傾向性을 중심으로 기존 의학내용에서부터 이끌어 낸 진보적인 학파의 견해를 少俞라고 하는 가상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시켰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內經』 에서는 骨節皮膚腠理의 堅固與否, 寒熱, 勇怯, 肥瘦의 차이에 따른 병리경향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骨節皮膚腠理의 脆弱, 多寒者, 怯者를 易發生性和 易轉化性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Ⅲ. 體質의 形成

體質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기초위에 일생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일부 예컨대, 李濟馬의 四象體質醫學이나 血液型에 의한 體質 구분 등의 경우에는 오로지 선천적인 인자만이 體質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內經』 에서는 선후천의 인자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 1. 先天的인 形成

“黃帝問于少師曰：余聞人之生也，有剛有柔，有弱有強，有短有長，有陰有陽，願聞其方。” 「素問·壽夭剛柔」

타고 나면서부터 氣質의으로는 剛柔의, 體力的으로는 強弱의, 外形의으로는 長短의, 全般的인 傾向性으로서는 陰陽의 差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素問·壽夭剛柔」는 명백하게 體質의 선천적 形成에 관한 것이다.

### 2. 後天的인 形成

體質을 후천적으로 形成하는 인자에 관하여 내경에서는 衣食住의 생활환경과 지리적 조건의 자연적 인자에서 다루고 있다.

“黃帝問曰：醫之治病也，一病而治各不同，皆愈何也？岐伯對曰：地勢使然也，故東方地域 … 其民食魚而嗜鹹，… 故其民皆黑色頹理，其病皆爲癰瘍，… 西方者 … 其民華食而脂肥 … 其病生于內 … 北方者 … 其民樂野處而乳食 … 藏寒生滿病 … 南方者 … 其民嗜酸而食脂，故其民皆緻理而赤色，其病癢痺 … 中央者 … 其民食雜而不勞，故其病多痿厥寒熱 …” 「素問·異法方宜論」

「素問·異法方宜論」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생활 조건, 특히 음식과 주거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서로 다른 體質類型을 形成하게 되는 것을 治療의 방법이 달라도 그 병이 모두 治療된다는 의

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體質이 선천 후천적으로 形成되며, 특히 음식이나 주거 등의 생활과 관련된 지리적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IV. 體質의 分型

體質의 分型은 각 體質說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匡<sup>13)</sup>의 보고에 의하면, 서양에서는 Hippocrates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 종의 體質類型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학에서는 대개 「內經」에서 제시한 몇 가지 類型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內經」에서의 分型을 전면적인가 혹은 단편적인가 하는 기준에 의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全面的이고도 系統的인 分型

#### 1) 五行 屬性에 따른 分型

“黃帝曰：余聞陰陽之人何如？

伯高曰<sup>14)</sup>：天地之間，六合之內，不離于五，人亦應之，故五五二十五人之政而陰陽之人不與焉，…

岐伯曰：… 雖伯高猶不能明之也，… 先立五形金木水火土，別其五色，異其五形之人而二十五人具矣。”

「靈樞·陰陽二十五人」

13) 匡調元：「人體體質學」，上海中醫學院出版社，1991

14) “伯高曰”에 관하여 守山閣校本注에는 “아래 문장(天地之間，六合之內，不離于五，人亦應之)은 「通天」편의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거기에서는 少師라고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伯高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伯高라는 견해에 의심을 품고 少師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張仲景이 「傷寒論·序」에서 上古에 神農, 黃帝, 岐伯, 伯高, 雷公, 少俞, 少師, 仲文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伯高와 少師는 다른 사람이 분명하다. 經文에 誤字가 있었던 것 같으며, 「甲乙經」에도 역시 少師라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陰陽論的 體質 分型보다는 五行論的 分型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天人相應의 관점에 바탕을 둔 分型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 교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丑 1〉 體質五行分類表

『靈樞·陰陽二十五人』

	典型					分類		
	地區	膚色	體形	稟性	時令適應	五音	陰陽屬性	態度
木形	東方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直, 身小, 手足好	有才, 勞心, 少力, 多憂, 勞于事	能春夏, 不能秋冬, 秋冬感而病生	上角 大角 鈇角 左角 判角	足厥陰 左足少陽之上 右足少陽之上 右足少陽之下 左足少陽之下	佗佗然 遺遺然 推推然 隨隨然 括括然
火形	南方	赤色	廣脰, 脫面, 小頭, 好肩背脾腹, 小手足, 行安地, 疾心, 行搖, 肩背肉滿	有氣, 輕財, 少信, 多慮, 見事明, 好顏, 急心	能春夏, 不能秋冬, 秋冬感而病生	上徵 質徵 右徵 少徵 質判	手少陰 左手太陽之上 右手太陽之上 右手太陽之下 左手太陽之下	核核然 肌肌然 皦皦然 惛惛然 支支顛顛然
土形	中央	黃色	圓面, 大頭, 美肩背, 大腹, 美股脛, 小手足, 多肉, 上下相稱, 行安地, 舉足浮	安心, 好利人, 不喜權勢, 善附人	能秋冬, 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上宮 大宮 少宮 左宮 加宮	足太陰 左足陽明之上 右足陽明之上 右足陽明之下 左足陽明之下	敦敦然 婉婉然 樞樞然 兀兀然 坎坎然
金形	西方	白色	方面,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 如骨發踵外, 骨輕	身清廉, 急心, 靜悍, 善爲吏	能秋冬, 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上商 鈇商 左商 少商 右商	手太陰 左手陽明之上 右手陽明之上 右手陽明之下 左手陽明之下	敦敦然 廉廉然 監監然 巖巖然 脫脫然
水形	北方	黑色	面不平, 大頭, 廉頤,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 背延延然	不敬畏, 善欺給人	能秋冬, 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上羽 桎羽 大羽 衆羽 少羽	足少陰 左足太陽之上 右足太陽之上 右足太陽之下 左足太陽之下	汗汗然 安安然 頰頰然 絮絮然 紆紆然

五行學說을 채용하여 먼저 피부의 색깔에 따라 木火土金水의 五行으로 나누고, 다시 外形의 大小長短, 氣質, 態度, 行爲 및 季節에 따른 기후의 寒熱에 대한 적응능력 등과 결합하여 五種의 기본형으로 귀납시켰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상용되던 類比의 방법으로서 五音大小, 陰陽屬性 및 手足三陽經의 左右上

下, 氣血多少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기본형에 네 가지의 亞形을 설정하므로써 “二十五人”의 體質을 분류하였다. 篇名에 陰陽이라는 개념이 등장되고는 있지만, 이는 분류의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기본형이 綱(陰)으로서 亞型인 目(陽)과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의 陰陽을 말하는 듯하다. 각 體質의 설명에 있



어서 陰陽論의 내용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五行論을 신봉하는 학파에 의해 分型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편의 내용 전개를 통하여 岐伯과 伯高는 같은 학파에 속하는 가상인물로서 伯高보다는 岐伯이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의 역할로 설정되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다(體質五行分類表 참고).

## 2) 陰陽 屬性에 따른 分型

“少師曰：天地之間，六合之內，不離于五，人亦應之，非徒一陰一陽而已也，而略言耳，口不能遍明也。…”

少師曰：蓋有太陰之人·少陰之人·太陽之人·少陽之人·陰陽和平之人，凡五人者，其態不同，其筋骨氣血各不等”  
「靈樞·通天」

“天地之間，六合之內，不離于五，人亦應之”라는 문장은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도 동일하게 전제된 것으로 天人相應의 觀念에 입각하여 五라는 숫자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五”가 「靈樞·陰陽二十五人」의 기초가 되는 五行의 “五”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단지 세상의,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萬物이 다섯 가지의 범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는 언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陰陽的 分類이지만 陰陽和平之人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는 다섯이라는 숫자에 부합하게 됨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역시 「靈樞·通天」에서도 五行의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체내 물질의 개괄로서의 陰陽의 多少, 인간의 性情 및 動態를 중심으로 陰陽의인 분류를 하고 있다.

추측컨대, 본 편은 李濟馬의 四象體質의학의 연원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sup>15)</sup>, 이는 李濟馬의 「東醫醫

世保元·辨證論」의 “「靈樞」書中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未得臟理，蓋太少陰陽人，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라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李濟馬는 「靈樞」의 내용을 전혀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靈樞·通天」에서도 “…非徒一陰一陽而已也，而略言耳，口不能遍明也”라고 전제하였듯이, 「通天」의 陰陽論的 體質 分類를 雜型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辨證論治의 기초가 되는 「傷寒論」의 내용을 그 자신의 임상 경험과 투철한 儒家哲學에 근거하여 분석해내므로써 비로소 그러한 각 體質의 臟理를 자세하게 밝히게 된 것이다.

이의 근거로서 「靈樞·通天」의 太陰之人과 少陰之人이 각각 四象體質의 太陰人, 少陰人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少師曰：太陰之人，多陰而無陽，其陰血濁<sup>1</sup>，其衛氣澁<sup>2</sup>，陰陽不和<sup>3</sup>，緩筋而厚皮，不之疾瀉，不能移之。少陰之人，多陰少陽，小胃<sup>4</sup>而大腸<sup>5</sup>，六府不調，其陽明脈小<sup>6</sup>而太陽脈大<sup>7</sup>，必審調之，其血易脫，其氣易敗也。…”

라고 한 내용을 李濟馬의 四象體質論<sup>16)</sup>과 관련시켜 보면,

1. 肝大, 肝藏血
2. 肺小, 肺主氣
3. 衛強營鬱의 傷寒이 쉽게 발생하는 경우로, 四象體質의학에서 太陽病 가운데 少陰人은 中風(傷風)에 잘 걸리며, 太陰人은 傷寒에 잘 걸린다.
4. 脾小, 脾와 胃는 表裏關係
5. 腎大, 腎의 腑는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있어서 大腸이다.
6. 脾小, 脾는 足陽明胃와 表裏關係

15) 王琦: 「中醫體質學」,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396

16) 四象醫學에서 太陰人은 肝大肺小, 少陰人은 腎大脾小, 太陽人은 肺大肝小, 少陽人은 脾大腎小로 각 체질의 분류를 하고 있다.

7. 腎大, 腎은 足太陽膀胱과 表裏關係이다. 물론 太陽脈을 문맥상 手太陽小腸으로 풀 수 있지만, 四象醫學의 臟腑配屬上 足太陽膀胱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sup>17)</sup>.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靈樞·通天」의 일부가 「傷寒論」과 관련한 李濟馬의 四象醫學의 내용에 정확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써 「靈樞·通天」은 三陽三陰으로 전개되는 「傷寒論」의 辨證論治 정신을 거쳐 朝鮮末葉 李濟馬의 四象體質醫學에 이르러 비로소 開花한 陰陽論的 體質分型 전통의 嚆矢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體質陰陽分類表 참고).

「內經」에서의 全面的, 系統的 分型은 모두 「靈樞」에서 제시한 五行論的 陰陽論的 分類에 따르고

있다. 이 두 分型 사이에는 상호 연관관계도 있는데, 예컨대 水型人은 太陰之人, 少陰之人과 비슷하여 모두 陰人에 속하며, 火型人은 太陽之人, 少陽之人과 비슷하여 모두 陽人에 속하고, 木型人은 陰陽중간에서의 偏陽型이며, 金型人은 陰陽중간에서의 偏陰型이고, 土型人은 陰陽和平之人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까닭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내포하기도 한다<sup>18)</sup>. 두 체계는 이처럼 서로 유사한 면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陰陽論的 分類를 제시한 「靈樞·通天」이 좀 더 심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후에 유가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性情을 중시하는 四象醫學의 연원이 될 수 있는 所以이기도 하다.

〈丑 2〉 體質陰陽分類表

「靈樞·通天」

類型	陰陽多少	生理特徵	心理特徵	行爲特徵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澁,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貪而不仁, 下齊澁澁, 好內而惡出, 心和而不發, 不務於時, 動而後之	黷黷然黑色, 忿然下意, 臨臨然長大, 臆然未僂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小貪而賊心, 見人有亡, 常若有得, 好傷好害, 見人有榮, 乃反慍怒, 心疾而無思	清然, 窈然, 固以陰賊, 立而躁驗, 行而似伏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居處于子, 好言大事, 無能而虛說, 志發于四野, 舉措不顯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而常無悔	軒軒儲儲, 反身折臑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在外, 實陰而虛陽	諛諛好自貴, 有小小官, 則高自宜, 好爲外交而不內附	立則好仰, 行則好搖, 其兩臂兩肘 則常出于背
陰陽平和之人	陰陽氣和	血脈調	居處安靜, 無爲懼懼, 無爲欣欣, 婉然從物, 或與不爭, 與時變化, 尊則謙謙, 譚而不治, 是謂至治	委委然, 隨隨然, 顛顛然, 愉愉然, 曠曠然, 豆豆然, 衆人皆曰君子

17) 본문에서 胃를 陽明으로, 腸을 太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포괄성에 참고하여 본다.

18) 錢承輝 王慶其 主編: 「中醫臟象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209

## 2. 한 가지 特徵에 根據한 分型

### 1) 體型, 肥瘦에 따른 分型

“黃帝曰：願聞人之白黑肥瘦小長，各有數乎？  
 岐伯曰：… 此肥人也 …  
 黃帝曰：刺瘦人奈何？  
 岐伯曰：瘦人者，…”

「靈樞·逆順肥瘦」

體型을 壯(肥)人, 瘦人 및 常人으로 나누고, 그 外形과 生理에 따른 治療方法을 제시하였다.

“黃帝問于伯高曰：人之肥瘦大小寒溫，有老壯少小，別之奈何？  
 … 黃帝曰：何以度知其肥瘦。  
 伯高曰：人有肥，有瘠，有肉，…”

「靈樞·衛氣失常」

體型을 肥(脂)·膏·肉의 셋과 衆人으로 나누고, 肉과 皮의 상태, 肉과 皮膚의 무늬, 大小, 氣血多少 등의 차이로써 분류하고 治療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黃帝問曰：風之傷人也，或爲寒熱 …  
 岐伯對曰：…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眦，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人瘦則外泄而寒，則爲寒中而泣出”

「素問·風論」

足陽明胃經으로 들어온 外感風邪에 대한 肥瘦人의 상이한 病理傾向性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肥人의 경우에 風氣가 外泄치 못하는 이유는 “氣血黑而濁，其氣澁以遲”(「靈樞·逆順肥瘦」)한 까닭이고, 瘦人의 경우에 外泄케 되는 이유는 “其血清氣滑，易脫于氣，易損于血”(「上同」)하기 때문이다. 또한 肥人은 「靈樞·通天」의 “太陰之人”과 四象 體質 가운데 太陰人과, 瘦人은 同篇의 “少陰之人”과 四象 體質 가운데 少陰人, 少陽人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데, 「靈樞·逆順肥瘦」의 “易脫于氣”는 少陰人의 경우와, “易損于血”은 少陽人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丹溪<sup>19)</sup>가 말한 “肥人濕多，瘦人火多”에서의 肥人은 太陰人에, 瘦人은 대개 少陽人의 경우와 때로는 氣虛發熱하는 少陰人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稟性, 勇怯에 따른 分型

“少俞曰：勇士者，目深以固，… 怯士者，目大而不減，…”  
 「靈樞·論勇」

肝膽을 중심으로 한 생리적 특성과 外形(目, 三焦理, 關肝)에 따른 勇怯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黃帝問曰：人之居處動靜勇怯，脈亦爲之變乎？  
 岐伯對曰：凡人之驚恐悲怒動靜，皆爲變也。… 常是之時，勇者氣行則已，怯者則著而爲病也。…”

「素問·經脈別論」

驚恐으로 인한 발병의 여부를 勇怯의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 3) 鍼刺 反應 分型

2)의 생리반응성 가운데 「靈樞·行鍼」의 내용에 이에 해당한다. 「內經」에서는 體質 分型의 단편적인 기준으로서 肥瘦 勇怯 및 鍼刺 反應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19) 朱丹溪: 「格致餘論·治病先觀形色然後觀察脈問證論」, 人衛影印本, 1959, p.48

## V. 體質의 診斷과 治療

“古之善用鍼艾者，視人五態乃治之”

『靈樞·通天』

### 1. 診斷

“不適貧富貴賤之居，坐之薄厚，形之寒溫，不適飲食之宜，不別人之勇怯，不知比類，足以自亂，不足以自明，此治之三失也”  
『素問·徵四失論』

勇怯 등의 體質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단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故曰診病之道，觀人勇怯，骨肉皮膚，能知其情，以爲診法也”  
『素問·經脈別論』

驚恐恚怒動靜으로 말미암은 질병의 경우에 반드시 환자의 勇怯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帝曰：以候奈何？  
岐伯曰：必先度其形之肥瘦，以調其氣之虛實，… 形盛脈細，少氣不足以息者危。形瘦脈大，胸中多氣者死，…”  
『素問·三部九候論』

氣의 多少와 관련된, 즉 肥者多氣, 瘦者少氣가 정상적이라는 전제 아래, 형태의 肥瘦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岐伯曰：美眉者，足太陽之脈氣血多，… 可以知逆順矣”  
『靈樞·陰陽二十五人』

五行論에 입각하여 體質을 분류하였지만, 治療를 위한 진단의 준거로서 美毛와 肌肉의 肥瘦와 潤澤與否를 제시하여 氣血의 多少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시켰다. 이러한 진단의 방향은 五行學說에 따른 體質 分類과는 정합하지 않는, 즉 이론과 임상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 못하는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편의 五行論的 體質 分類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鍼灸治療를 잘 하기 위해서는 太少陰陽人 五態의 體質을 먼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통하여 陰陽論的 體質의 分型이 이미 鍼灸의 治療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 勇怯의 진단은 주로 七情으로 말미암은 질환의 경우에 중요하고, 肥瘦는 氣의 多少를, 陰陽論과 五行論的 體質 分型에서는 氣血 陰陽의 多少를 진단하여 治療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 2. 治療

#### 1) 肥瘦에 따른 治療

“必先度其形之肥瘦，以調其氣之虛實，實則瀉之，虛則補之，必先去其血脈而後調之，無問其病，以平爲期”  
『素問·三部九候論』

肥人은 多氣하고 瘦人은 少氣하다는 전제 아래 그 肥瘦를 살펴 氣를 補瀉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伯高曰：必先別其形，血之多少，氣之清濁以候調之，治無失常經，…”  
『靈樞·衛氣失常』

肥(脂)·符·肉의 三形人을 氣의 清濁과 血의 多少로 파악하여 治療에 연관시키고 있다.

“… 刺此者，深而留之，此肥人也。… 其血黑以濁，其氣澁以遲，… 瘦人者，… 其血清氣滑，易脫于氣，易損于血，刺此者，淺而疾之，…”  
『靈樞·逆順肥瘦』

肥人은 그 血이 검어서 탁하며 그 氣가 澁하여 운행이 느리므로 深刺하고 留鍼시키라고 하였으며, 瘦人은 血清氣滑하므로 淺刺하고 留鍼시키지 말라고 하여 肥瘦人의 氣血生理에 입각한 治療를 강조하였다.

## 2) 陰陽 屬性에 따른 治療

“黃帝曰：刺其諸陰陽奈何？”

岐伯曰：按其寸口人迎，以調陰陽，…”

『靈樞·陰陽二十五人』

“古之善用鍼艾者，視人五態乃治之，盛者瀉之，虛者補之，

黃帝曰：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太陰之人，多陰而無陽，其陰血濁，其衛氣澁，陰陽不和，緩筋而厚皮，不之疾瀉，不能移之。少陰之人，多陰少陽，…必審調之，其血易脫，其氣易敗也。太陽之人，多陽而少陰，必謹調之，無脫其陰而瀉其陽，重脫者易狂，陰陽皆脫者，暴死不知人也。少陽之人，多陽少陰，…實陰而虛陽，瀉邪其絡脈，則強氣脫而疾，中氣不足，病不起也。陰陽和平之人，其陰陽之氣和，血脈調，…審有餘不足，盛則瀉之，虛則補之，不盛不虛，以經取之，此所以調陰陽，別五態之人者也。” 『靈樞·通天』

본래 『靈樞·陰陽二十五人』은 五行論에 입각한 體質分型을 하였지만, 실제 임상 내용은 『通天』편의 치료목표와 같은 “調陰陽”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五行論의 體質分型의 성격이 지나치게 관념적인 까닭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通天』에서는 體質에 따른 (氣血)陰陽의 有餘不足을 조절하는 鍼灸治療를 하라고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氣血陰陽의 補瀉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陰陽和平之人의 경우에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라는 『靈樞·經脈』의 治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본 편에서는 補母瀉子의 補瀉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內經』에서의 體質과 관련된 진단과 치료의 내용은 계통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陰陽論의 分型이, 단편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로서는 肥瘦의 分型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肥瘦 역시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陰陽論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 임상적인 가치를 지니는 한의학의 體質論은 『內經』에서부터 『傷寒論』과 『東醫壽世保元』으로 이어지는 陰陽論의 傳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VI. 結 論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素問』 보다는 『靈樞』에서 더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인 體質論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內經』의 체질론을 요약할 수 있다.

1. 『內經』에서의 體質에 대한 인식은 溫熱, 痛症 및 鍼灸治療에 대한 生理反應性의 측면과, 骨節皮膚腠理의 堅固與否, 寒熱, 勇怯, 肥瘦의 차이에 따른 病理傾向性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2. 體質의 形成에 관련하여 선천·후천적인 인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飲食이나 住居環境 등의 생활조건이 언급되었다.
3. 體質의 分型은 전면적·계통적으로는 五行論과 陰陽論에 의해, 단편적 기준으로는 肥瘦, 勇怯 및 鍼刺에 대한 반응이 제시되었다.
4. 體質에 따른 진단으로서, 勇怯은 주로 七情에 의한 질환의 예후판정을 위해서이고, 肥瘦는 氣血의 多少를, 陰陽論과 五行論의 體質分型에서는 氣血陰陽의 多少를 진단하여 治療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5. 體質에 따른 治療에 관하여 『內經』에서는 肥瘦人, 五行論의 그리고 陰陽論의 體質分型의 경우만 언급하였다. 肥瘦人은 각각의 氣血生理에 따른 治療를 강조하였고, 五行論의 體質分型에 따른 治法이 결국 陰陽論의 體質分型의 치료 목표와 같은 “調陰陽”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한의학의 이론체계내에서는 體質論에 관한 한, 陰陽論이 五行論보다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陰陽學說의 바탕위에 선 『黃帝內經』의 體質論은 역시 三陽三陰으로 전개되는 『傷寒論』의

辨證論治 정신을 거쳐 朝鮮末 李濟馬의 四象醫學에 의해, 鍼으로써가 아닌, 藥物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한 “調陰陽”이 실현되므로써 비로소 그 꽃을 피었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出版社, p.7, 141, 1979
- 2) 崔昇勳: 『內經病理學』, 서울, 통나무, pp. 237-259, 1995
- 3)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pp.197-204, 1991
- 4)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5)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醫藥衛生分冊,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11, 1979
- 6)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68-173, 286-310, 428-447, 544-556, 581-595, 1261-1266, 1301-1334, 1982
- 7)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上冊) pp.140-163, 542-550, (下冊) pp. 37-47, 101-108, 120-121, 198-224, 250-254, 285-297, 1982
- 8)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醫學源流論』, 臺北, 五洲出版社, pp.67-68, 1969
- 9)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臺北, 旋風出版社, 卷四·四, 1978
- 1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In: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11) 王琦: 『中醫體質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396, 1995
- 12) 王雲五主編: 『四部總刊正編1卷·周禮』, In: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13) 尤在涇: 『傷寒貫珠集』, In: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14) 俞根初: 『通俗傷寒論』, In: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15) 張景岳: 『景岳全書』, In: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16) 章虛谷: 『醫門棒喝』, 臺北, 自由出版社, p.16, 33, 37, 39, 48, pp.67-69, 1987
- 17) 錢承輝 王慶其 主編: 『中醫臟象學』,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p.209, 1989
- 18) 趙守正撰: 『管子註釋(下冊)·水地』,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p.30, 1987
- 19) 朱丹溪: 『格致餘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8, 1959
- 20) 陳鼓應: 『老子註譯及評價』, 臺北, 中華書局, p.78, 1987
- 21)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pp.136-137, 1984
- 22) 陳復正: 『幼幼集成』, In: 匡調元,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46, 1996
- 23)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14-315, 1985
- 24) 山田慶兒: 黃帝內經の成立, 『思想』662호, 1979